

OLED 진공이송장비 제작... 매출 86%·순익 689%↑ 깜짝실적

코스닥 상장 기업탐방 에스엔텍

“100m가 넘는 장비가 A동과 B동에 나눠 제작 중입니다.”

지난 11일 찾은 경기도 화성시 에스엔텍 본사. 에스엔텍 프로젝트 관리팀 관계자는 창문 너머로 작업동 내부를 보여줬다. 방진복과 라텍스장갑, 안전모에 안전화까지 완벽하게 갖춰 입은 직원들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 진공 물류이송 시스템 장비를 제작하고 있었다. 파랑, 하양, 빨강 세가지 색의 방진복을 입은 직원들이 장비 제작에 한창이었다.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고객사에서 제작 과정을 감수하는 사람이고, 하얀 옷은 에스엔텍 직원, 파란 옷은 협력사 직원이라고 했다.

에스엔텍 이상철 과장은 “지문이나 먼지가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방진복 등 장

2015년 코스닥시장 상장

8세대급 대형물류 양산 실적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기록

장비사업 위주 한계극복 노력

비를 철저히 갖춰 입고 작업한다”고 설명했다.

◆OLED 라인 물류 이송 시스템

OLED 라인 진공 물류이송 시스템은 OLED 증착과 공정 과정 사이사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기, 수분, 파티클 등의 환경에 의한 오염을 막는 기술이다. 현재 에스엔텍에는 진공, CDA(Clean Dry Air), N2(질소) 세가지 환경에서 OLED의 물류 이송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 있다.

거대한 기계 때문에 한 공간에서 작업하지 못하고 A동과 B동, 두 동에 걸쳐 제작한다. 제작, 도킹, 설치 등 전 과정에서 순서대로 제품 검수를 한다. 이 장비를 제작하는데 약 6개월이 걸린다. 에스엔텍은



에스엔텍의 OLED 장비.

/에스엔텍 홈페이지

대형 OLED 제품 제작에 사용되는 8세대급 대형물류 양산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대형 물류 장비를 제조하는 라인은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건너편 건물에서는 OLED 라인 CDA 물류 이송 시스템 장비를 제작중이었다. 이 건물은 지난 2017년 준공한 S동 신공장과 달리 한 공간에서 전체 장비를 제조할 수 있는 곳이었다. 창 너머로 끝을 보기 힘든 안쪽 공간까지 거대한 장비가 한 줄로 배치돼 있었다.

에스엔텍은 지난 2004년 설립된 설비용량 장비 제작 기업이다. 설립 초반에는 주로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사용하는 R&D(연구·개발) 장비를 제작해 공급했다. 포트폴리오가 쌓이면서 여러 기업들에 관련 장비를 납품하게 되고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양산 장비 시장에 진입해,

2015년 코스닥시장에 진출했다.

에스엔텍의 매출은 주로 OLED 라인 물류 이송 시스템 장비에서 발생한다. 2018년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OLED 라인 물류 이송 시스템 장비의 매출 비중은 전체의 62.5%로 절반을 넘는다.

◆2차전지 등 미래 먹거리 개발 주력

에스엔텍이 2017년부터 시작한 2차 전지 제조공정 배터리 패키징 자동화 정비 산업은 비중이 커지기 시작했다. 2017년 매출의 12.7%를 차지했던 2차 전지는 2018년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17.1%까지 늘었다.

이대우 에스엔텍 재무관리본부 이사는 “올해는 전체 매출에서 2차 전지 비중이 30~40%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에스엔텍은 이달 초, 작년 연간 매출액이 1127억 4800만원에 달한다며 창사 이래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86% 증가

했다.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157% 증가한 49억3900만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전년(6억8500만원) 대비 689% 증가한 54억400만원을 나타냈다.

에스엔텍은 그동안 꾸준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다. 이대우 이사는 “2017년 606억1900만원으로 실적이 줄었고 중간중간 역성장한 해도 있지만 전고점을 밀던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장비 사업 위주로 꾸리던 회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에스엔텍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꾸준히 개발 중이다.

휴대폰 터치스크린의 전자파 차폐 기술인 전자방해잡음(EMI) 실드(shield)와 반도체 공정진단 시스템인 웨이퍼 센서도 양산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대우 이사는 “기업과 대학 등 R&D 관련 장비를 개발하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꾸준히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스엔텍은 강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스엔텍의 자회사인 이노페이스는 태양전지 제조 소모품도 개발했다. 지난 10년 동안 1%포인트밖에 개선되지 않았던 태양광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스텐실 방식은 전극선 제조 시 기존 스크린 방식보다 선 폭을 줄이고 균일도를 높여준다고 한다.

에스엔텍 관계자는 “이런 스텐실 방식의 전극선 제조 소모품은 작년 말 시험 생산을 완료하고 빠르면 올해 1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 전망했다.

/화성(경기)=배한남 기자 ericabae1683@metrosoul.co.kr



임형준 금융결제원장 내정설에 노조 반발

(한국은행 부총재보)

3개 노동조합, 반대 성명 발표
낙하산 논란 끊이지 않는 자리
한은 인사국장 시절 잦은 충돌

차기 금융결제원장으로 임형준 한국은행 부총재보(작은 사진)가 내정됐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3개 노동조합이 이례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결제원장 자리는 대대로 한은 출신 인사들이 차지해왔기 때문에 낙하산 논란은 늘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노조가 유독 임 부총재보의 내정설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 원장추천위원회는 신입 원장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내고 오는 20일 원서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후보 중 한 명으로 임형준 한은 부총재보가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임 부총재는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거쳐 인사경영국장과 인사담당 부총재보 등을 역임한 이주열 총재의 최측근이다. 임 부총재보는 오는 5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흥모 현 금융결제원장 임기는 오는 4월 초가 지다.

임 부총재의 금융결제원 내정설에 전국금융산업노조와 금융결제원 노조, 한은노조가 각각 임 부총재보의 금융결제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금융결제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금융결제원장을 뽑는 공고를 올려왔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발표했다.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은행이 부적절한 인사를 금융결제원장으로 선임하려는 것은 절대 용

납할 수 없다”고 밝혔고, 한은 노조도 “전문성을 무시한 이러한 결정은 한국은행이 그동안 지키려고 애써 온 독립성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사실 금융결제원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금융결제원의 역대 원장 13명 모두가 한국은행 출신이었다. 이흥모 현 금융결제원장은 1981년 한국은행을 입행해 금융시장국장, 해외조사실장, 발원국장 등을 거쳐 2014년 부총재보를 역임한 후 금융결제원장이 됐다. 서열상으로도

임 부총재보는 다음 금융결제원장 차례다.

그럼에도 노조가 임 부총재보를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인사와 관련한 내부 불만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임 부총재보는 2014년 4월부터 2년간 인사경영국장을 역임했다. 이 기간 임 부총재보는 한은 직원들의 퇴근 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한 시간 늦추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임 부총재보가 내정됐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각 노조에서 반발이 심한 이유는 한은 내부에서 임 부총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이 표출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1986년 금융결제관리원으로 설립돼 지급결제 시스템의 주 참가기관인 은행 간의 자금결제와 지급결제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국가 금융 공동 전산망을 운영하는 만큼 한국은행을 비롯한 모든 은행이 회원사로 회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금융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나 감사원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

지난해국감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집단의 재취업 창구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금융결제원은 지구 노력과 함께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희주 기자 h89@

<장애인 전용보험 주요내용>

종류	보장성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단체보험
보장범위	암, 사망을 주로 보장	연금 보험	자동차보험(대인, 대물, 자손 등)	재해사망을 주로 보장
특징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	일반상품보다 생존기간 중 연금액을 더 지급	추가 가능한 보장 : 건강회복지원금 등	추가 가능한 보장 : 질병사망, 암진단 등
판매처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KDB생명	DB손보	삼성생명, 교보생명

/자료=금융감독원

세제혜택 담긴 장애인 보험 안내서 나온다

장애인의 보험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보험과 세제혜택, 상당 청구 목록 등이 담긴 장애인 보험 안내자료가 제작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안내자료로 제작해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장애인 보험 관련 개선 및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우선 보험가입시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거나 심사에 장애여부를 반영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부터 장애 사전고지를 폐지해 전면 시행 중이다. 보험 계약 과정에서 장애로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경우 인권위에 권리 구제를 신청하

거나 금융원에 민원으로 제보할 수 있다.

안내자료에는 장애인 전용보험의 가입대상, 주요 보장내용 및 판매회사 등이 담긴 예정이다. 암 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일반상품 대비 보험료가 20~30% 저렴하다.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다 생존기간 중 지급 연금액이 더 크다.

세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의 전환방법과 사례도 소개된다. 피해보험자나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이면 각 보험사에 연락해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보험회사는 올해 1월부터 전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2020년 초 실시하는 연말정산에서 확대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희주 기자

부울경 핀테크 기업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금융위원회가 부산·울산·경남지역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임시 해제·유예) 설명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부산·경남지역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한 핀테크 정책 방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울산·경남지역 핀테크 기업이나 예비창업자, 금융회사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및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전화 신청 하면 되고, 행사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서유리 기자